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2.373>

JCCT 2024-3-44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및 공감능력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Nursing Competency,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and Empathy Ability according to the Enneagram Center of Power

신은선*

Shin Eun Sun*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에 따른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및 공감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일 지역에 소재하는 2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218명이었으며, 자료수집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version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차이검증은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대상자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은 9번 유형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에서는 본능중심형이 간호역량이 가장 높았고, 사고중심형은 임상추론역량이 가장 높았으며, 감정중심형은 공감능력이 가장 높았다. 또한 간호역량과 임상추론역량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임상추론역량과 공감능력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성격유형검사를 반영한 개인에게 맞는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추론역량이 높아 간호역량과 임상추론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임상추론역량, 공감능력, 성격, 간호역량,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competency,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and empathy ability according to the center of enneagram power for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18 student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two universities located in one region,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16 October to 27 October 2023.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WIN version 26.0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and difference verification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The enneagram personality type of the subjects of this study was the most common type 9. And in the enneagram center of power, the instinct-centered type had the highest nursing competence, the thought-centered type had the highest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and the emotion-centered type had the highest empathy ability. In addition, nursing competence and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nd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and empathy ability were also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ntinue to develop and apply individualized competency building programs that reflect personality type tests to nursing students. In addition, the higher the empathy ability, the higher the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so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tandardized curriculum that can improve nursing competence and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and verify its effectiveness.

Key words :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Empathy Ability, Personality, Nursing Competency, Nursing Students

*정희원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제1저자,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1월 30일, 수정완료일: 2024년 2월 21일
게재확정일: 2024년 2월 25일

Received: January 30, 2024 / Revised: February 21, 2024

Accepted: February 25, 2024

*Corresponding Author: ses0889@naver.com

Dept. of Nursing Science, Gwangju Univ, Korea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의료 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역량의 기반이 간호대학생 개인의 성격과 특성에 근거하고 있다[1]. 에니어그램은 성격유형을 이해하고 분류하는 심리학적 도구로 인간의 성격과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9가지 기본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각각 1부터 9까지의 번호로 표현되면서 각 유형은 특정한 특징과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2]. 그리고 개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자기인식과 대인관계, 직업적 성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3].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은 8, 9, 1번 유형을 본능중심, 2, 3, 4번 유형을 감정중심, 5, 6, 7번 유형을 사고중심이라고 하며,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은 1유형은 완벽주의적이며, 자기 통제에 높은 욕구가 있는 유형, 2유형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 3유형은 성공과 성취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진, 목표 지향적인 유형, 4유형은 독특하고 예술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기표현에 중점을 둔 유형, 5유형은 지식을 중시하며,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는 유형, 6유형은 안전과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양한 유형, 7유형은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찾는 것을 좋아하는, 즉흥적이고 활기찬 유형, 8유형은 힘과 권력을 중시하며,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유형, 9유형은 평화와 조화를 중시하며,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유형이다[4]. 국내에서 간호대학생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으로 9유형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보고되었고[3], 이는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강한 포용력을 가져야 하는 간호사의 업무적 특징과 부합되고 있다[1]. 따라서 에니어그램이 간호대학생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중요한 도구로써 성격유형과 에너지인 힘의중심의 확인이 필요하다.

간호역량은 개인의 고도로 차별되는 내적 특성으로서 간호역할의 전체적인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고 환자 중심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5]. 그리고 환자 안전 및 질적의료 서비스 제공, 복잡한 환자 상황 대응 요구, 간호교육 및 훈련의 향상, 인간적 역량 강화, 전문성 및 직업 만족도 향상, 연구 및 혁신

을 통한 의료분야의 진보 등 현대 의료 환경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도전과 책임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6]. 의료기관들은 간호대상자들의 의료지식 향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면서 질적 간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간호역량을 개발하고 육성시킨다면 질적인 간호제공 뿐만 아니라 업무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7]. 이외에도 간호역량은 급변하는 현대 보건의료 환경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거기반의 지식을 임상 수행으로 이행하는 도전이 될 것이고[8], 간호 현장에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체계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9]. 또한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10] 있어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역량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임상추론역량은 간호실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간호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게 하며, 복잡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면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11]. 그리고 임상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 과정이며 질적 의료 제공을 통하여 다양한 상황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며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질병 조기발견과 예방을 통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향상 시키도록 한다[12]. 간호대학생들에게 임상추론역량은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통하여 효과를 확인한 연구[11, 13]가 있으나, 임상추론역량 증진 효과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14]. 또한 간호대학생 3, 4학년 임상추론역량 수준은 대체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15], 의료분야에서 의료전문가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임상추론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임상추론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16].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이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추론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특정 성격유형이 어떻게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감능력은 대상자를 배려하면서 감정과 경험을 정확하게 지각하도록 하며 객관적인 언어로 전달하고 내면적 동기를 찾아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다[17]. 그리고 대상자의 경험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의 느낌 그대로 느껴 보고 자신의 것으로 재경험해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18].

공감능력은 자신과 타인 사이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이며 소통의 능력으로 공감을 적용했을 때 의사소통능력이 증진될 수 있다[19]. 그래서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인식과 더불어 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공감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20]. 또한 공감능력은 간호역량을 높이고 간호전문적인 요소들을 통합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이다[18].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의 공감능력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현재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에니어그램 연구는 간호전문직관, 창의적 리더십, 간호진로분야 선호도[1], 취업불안, 외모만족도 및 자기표현성[3],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21], 정서지능, 방어기제와 대인돌봄행위[22], 의사소통능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23], 에니어그램 활용 자기이해 기반 돌봄역량 강화 프로그램 효과[24]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 간호분야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대상자들과 상호작용하는데 필요한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및 공감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에니어그램이 간호대학생들의 행동 및 성격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으나,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에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및 공감능력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교육 및 간호실무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및 공감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적을 가진다.

- 1) 대상자의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공감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에 따른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공감능력 차이를 확인한다.
- 3) 대상자의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및 공감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 지역에 소재하는 2개의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을 편의표집 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진행 절차를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들이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7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는 중간크기인 0.3, 검정력 .80로 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창의적 리더십, 간호진로분야 선호도의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1]에 따라 예측변인 11개로 계산하였으며,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는 198명이었대[25]. 이를 근거로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238명의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20부를 제외하고 총 218명의 설문지 결과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한국형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

한국형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는 윤운성[26]이 개발하고 전국 표준화한 검사지로 9가지 성격유형별로 9문항씩, 총 8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유형을 성격유형으로 판정한다. 윤운성[26]의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7$ 이었다.

2) 간호역량

간호역량은 김은정과 남경아[27]가 개발한 간호역량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간호역량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기술적 역량 2문항, 임상적 판단 4문항, 의사소통 4문항, 전문직 리더십 3문항, 전문직 실무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매우 부족' 1점부터 '매우 잘함' 4점까지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 점은 최저 16점에서 최고 64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

수가 높을수록 간호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김은정과 남경아[2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3) 임상추론역량

임상추론역량은 한국어판으로 개발된 임상추론역량 척도로 정재원과 한정원[28]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임상추론역량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환자의 정보를 수집 및 사정하고, 간호문제를 도출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최저 15점에서 최고 75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추론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재원과 한정원[2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4)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Davis[29]의 대인관계 반응성 척도 (Internal Reactivity Index, IRI)를 강일 등[30]이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공감능력은 관점수용, 항상,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4가지 요인을 각 7문항씩 총 28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점은 최저 28점에서 최고 140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강일 등[3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일 지역에 소재하는 2개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각 대학 학부장,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연구보조원이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 자료수집 절차, 익명성 및 비밀 보장, 개인정보 보호, 연구자료의 폐기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하여 연구자만이 열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후에 연구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없음을 안내하였다,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에 한해서 서면 동의서 작성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자기 기입식으로 응답 후 바로 회수하였으며, 작성 시간은 평균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공감능력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에니어그램 힘의중심,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공감능력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공감능력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에니어그램 유형과 힘의중심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으로 학년은 3학년 115명(52.8%), 4학년 103명(47.2%)이었고, 성별은 남자 56명(25.7%), 여자 162명(74.3%)이었다. 동아리 활동 경험은 있음이 79명(36.2%), 없음이 139명(63.8%)으로 많았다. 성격은 내성적 98명(45.0%), 외향적 120명(55.0%)이었고, 전공만족도는 만족 102명(46.8%), 보통 81명(37.2%), 불만족 35명(16.0%)이었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취업보장이 75명(34.4%), 성적고려 62명(28.4%), 적성고려 46명(21.1%), 주변권유 26명(11.9%), 기타 9명(4.2%) 순이었다.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은 9번이 38명(17.4%)으로 가장 많았고, 본능중심이 84명(38.5%), 감정중심이 70명(32.1%), 사고중심이 64명(29.4%) 순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에니어그램 유형과 힘의중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and Enneagram Type and Center of Power (N=218)

특성	구분	N(%)
학년	3학년	115(52.8)

	4학년	103(47.2)	
성별	남자	56(25.7)	
	여자	162(74.3)	
동아리활동	있음	79(36.2)	
	없음	139(63.8)	
성격	내성적	98(45.0)	
	외향적	120(55.0)	
전공만족도	만족	102(46.8)	
	보통	81(37.2)	
	불만족	35(16.0)	
간호학과 지원 동기	적성고려	46(21.1)	
	성적고려	62(28.4)	
	취업보장	75(34.4)	
	주변권유	26(11.9)	
	기타	9(4.2)	
에니어그램 유형과 힘의중심	장형 (본능)	8번	14(6.4)
		9번	38(17.4)
		1번	32(14.7)
	가슴형 (감정)	2번	33(15.1)
		3번	21(9.6)
		4번	16(7.4)
	머리형 (사고)	5번	19(8.8)
		6번	28(12.8)
		7번	17(7.8)

2. 대상자의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공감능력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공감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한 결과, 간호역량은 4점 만점에 2.86±0.84점, 임상추론역량은 5점 만점에 3.94±0.73점,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3.87±0.86점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공감능력 정도
 Table 2. Degrees of Nursing competency,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Empathy ability (N=218)

변수	Min	Max	M±SD
간호역량	1.96	4.00	2.86±0.84
임상추론역량	2.58	5.00	3.94±0.73
공감능력	2.64	5.00	3.87±0.86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에 따른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공감능력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에 따른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공감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역량은 간호학과 지원동기(F=1.328, $p=0.24$), 에니어그램 힘의중심(F=1.659,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 적성을 고려한 경우 간호역량이 높았고,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에서는 본능중심형이 간호역량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학년, 성별, 성격, 동아리활동, 성격, 전공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추론역량은 간호학과 지원동기(F=2.347, $p=0.04$), 에니어그램 힘의중심(F=4.645,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 적성과 성적을 고려한 경우 임상추론역량이 높았고,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에서는 사고중심형이 임상추론역량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학년, 성별, 성격, 동아리활동, 성격, 전공만족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은 전공만족도(F=4.625, $p=0.03$), 간호학과 지원동기(F=1.864, $p<.001$), 에니어그램 힘의중심(F=2.632, $p=0.3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 결과 전공에 만족한 경우 공감능력이 높았고,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 적성을 고려한 경우 공감능력이 높았다. 그리고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에서는 감정중심형이 공감능력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학년, 성별, 성격, 동아리활동, 성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대상자의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간호역량과 임상추론역량($r=.523$,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임상추론역량과 공감능력($r=.552$, $p=.035$)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대상자의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Nursing competency,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Empathy ability (N=218)

변수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공감능력
	r(p)		
간호역량	1		
임상추론역량	.523(<.001)	1	
공감능력	-.185(.354)	.552(.035)	1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에 따른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공감능력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Nursing competency,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Empathy abilit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and the center of Enneagram power (N=218)

특성	구분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공감능력	
		M±SD	t/F(p) Scheffé	M±SD	t/F(p) Scheffé	M±SD	t/F(p) Scheffé
학년	3학년	2.85±0.72	-1.536(.286)	3.75±0.82	-0.692(.486)	3.87±0.35	-0.158(.326)
	4학년	2.89±0.65		3.79±0.68		3.72±0.38	
성별	남자	2.87±0.81	1.088(.283)	3.77±0.71	0.845(.396)	3.86±0.65	0.107(.827)
	여자	2.76±0.66		3.86±0.77		3.89±0.46	
동아리활동	있음	2.88±0.74	0.528(.931)	3.72±0.78	4.094(.747)	3.87±0.26	1.265(.304)
	없음	2.78±0.65		3.91±0.70		3.79±0.49	
성격	내성적	2.96±0.83	1.792(.793)	3.65±0.63	1.572(.943)	3.82±0.38	0.346(.425)
	외향적	2.95±0.78		3.82±0.57		3.80±0.42	
전공만족도	만족 ^a	2.89±0.69	3.135(.132)	3.83±0.64	1.142(.433)	3.79±0.76	4.625(.003) a>b,c
	보통 ^b	2.74±0.63		3.75±0.82		3.84±0.59	
	불만족 ^c	2.65±0.75		3.73±0.65		3.95±0.55	
간호학과 지원동기	적성고려 ^a	2.75±0.68	1.328(.024) a,>b,c,d	3.81±0.79	2.347(.004) a,b>c,d	3.84±0.34	1.864(<.001) a,>b,c,d
	성적고려 ^b	2.81±0.66		3.91±0.68		3.88±0.39	
	취업보장 ^c	2.87±0.74		3.95±0.71		3.94±0.43	
	주변권유 ^d	2.74±0.72		3.76±0.67		3.81±0.35	
	기타	2.71±0.63		3.69±0.66		3.68±0.36	
에니어그램 힘의중심	가슴(감정)중심 ^a	2.89±0.86	1.659(<.001) c>a,b	3.87±0.84	4.645(<.001) b>a,c	3.89±0.45	2.632(.035) a>b,c
	머리(사고)중심 ^b	2.85±0.79		3.76±0.73		3.75±0.47	
	장(본능)중심 ^c	2.95±0.97		3.94±0.79		3.97±0.49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에 따른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및 공감능력의 관계를 파악하였고,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은 9번이 38명(17.4%)으로 가장 많았고, 두번째로 2번이 33명(17.4%)이었고, 1번 32명(14.7%), 6번 28명(12.8%), 3번 21명(9.6%), 5번 19명(8.8%), 7번 17명(7.8%), 4번 16명(7.4%), 8번 14명(6.4%)이었다.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은 본능중심이 84명(38.5%), 감정중심이 70명(32.1%), 사고중심이 64명(29.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9번 유형이 편견없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내심과 포용력이 있어 간호사 업무와 부합된다는 연구결과[1, 21]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 21]에서 에니어그램 힘의중심 중 본능중심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감정중심, 사고중심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에니어

그램 에너지인 힘의중심 중 본능중심은 남에게 좌우되는 것을 싫어하고 환경을 통제하면서 행동 중심적이고, 감정중심은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고중심은 미래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세우는 성격 특징을 가지고 있다[31]. 따라서 간호는 책무, 자율성, 옹호, 지식, 탐구 정신, 미래지향, 동료와 협력 등 간호전문직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간호대학생에게 다양한 성격유형 검사를 반영한 진로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간호역량은 4점 만점에 평균 2.86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채현주[9]의 연구에서는 2.61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역량은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 적성을 고려한 경우 간호역량이 높았고,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에서는 본능중심형에서 간호역량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적성을 고려하여 지원한 경우 총체적인 간호지식과 실무를 통합하여 전문적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로 간호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5]. 그리고 본능중심형에서 간호역량이 가장 높아 이것은 도전과 힘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강한 포용력과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간호사의 업무적 특징과 부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1]. 또한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10] 있어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실습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간호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에 따라 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임상추론역량은 5점 만점에 평균 3.94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한영인과 양영옥[32]의 연구에서는 3.70점이었고, 김채린 외[33]의 연구에서는 3.67점이었으며, 안주현과 김명숙[34]의 연구에서는 3.35점으로 모두 본 연구결과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추론역량은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 적성과 성적을 고려한 경우 임상추론역량이 높았고,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에서는 사고중심형에서 임상추론역량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추론역량을 갖춘 간호대학생이 환자 중심의 간호를 제공하며 팀과의 협력, 효과적인 의사소통, 윤리적인 의사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간호교육에서 임상추론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34]. 그리고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에서 사고중심형이 임상추론역량이 높았는데 사고중심형은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주로 논리와 분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간호학과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판단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고중심형의 임상추론역량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21]. 그래서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에게 임상추론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 강화 및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87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장희경 외[35]의 연구에서는 3.48점이었고, 한영인과 양영옥[32]의 연구에서는 3.23점이었으며, 김송이 [18]의 연구에서는 3.13점으로 모두 본 연구결과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습 후 환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상승되어 나온 결과로 예측된다. 그

리고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간능력은 전공에 만족한 경우 공감능력이 높았고, 간호학과 지원동기에서 적성을 고려한 경우 공감능력이 높았다. 그리고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에서는 감정중심형에서 공감능력이 가장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에게 전공만족도가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공감역량은 간호사의 필수적인 자질로 간호대학생이 졸업하기 전부터 습득하고 길러야 할 능력으로 다양한 접근 및 탐색이 필요하고[32], 공감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교수법 개발과 공감역량 비교과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35]. 또한 에니어그램 힘의중심 중 감정중심형은 감정에 중점을 둔 성격으로 특히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높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이면서 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다룰 수 있어 공감능력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24].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적성을 고려하여 학과를 지원하고 전공에 만족하면서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공감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간호역량과 임상추론역량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임상추론역량과 공감능력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역량과 임상추론역량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36]와 일치하였다. 간호역량에서 임상추론역량은 실습교육을 통하여 강화시킬 수 있어[32], 간호대학생의 임상추론역량을 높일 수 있는 융합적인 교육을 위해 임상현장에서 간호수행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37]. 그리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영인과 양영옥[32]의 연구에서 임상추론역량과 공감능력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32]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추론역량이 높음을 알 수 있어,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은 의사소통능력 이므로[17], 실습교육을 통하여 의사소통능력을 증진하도록 하면서 간호역량과 임상추론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기부여를 제시하고 임상추론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간호역량이 향상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32]. 이렇게 간호역량이 임상추론역량 및 공감

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세 변수 측정도구 세부 문항에서 유사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및 공감능력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교육 및 간호실무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본 연구대상자의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은 9번 유형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에서는 본능중심형이 간호역량이 가장 높았고, 사고중심형은 임상추론역량이 가장 높았으며, 감정중심형은 공감능력이 가장 높았다. 또한 간호역량과 임상추론역량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임상추론역량과 공감능력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다양한 성격유형검사를 반영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에 따라 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추론역량이 높은 것은 적성을 고려하여 간호학과를 지원하고 전공에 만족하면서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공감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간호역량과 임상추론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에게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에 따라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및 공감능력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간호학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지역에 소재하는 2개 4년제 대학교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에게 에니어그램 힘의중심을 반영한 간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간호역량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다양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간호역량, 임상추론역량 및 공감능력 변수간에 세부 문항에서 유사하게 중복

되는 부분이 있어 다른 변수들을 적용하여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Park SY, Kim WG, Choi HR, "Clinical Career Preference, Nursing Professionalism & Creative Leadership according to Enneagram Personality Type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19, pp.733-750, 2017. DOI: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19.733
- [2] Kim MH, Park SH, "Enneagram experience of university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Enneagram Spirituality*, Vol.7, pp.5-16, 2018. DOI:https://www.earticle.net/Article/A340410
- [3] Kim SY, "A Study on Employment Uneasiness,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 Expression by Enneagram Type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14, pp.691-706, 2019. DOI: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14.691
- [4] Lee MR, Jeon HS, "Personal types, Ego-resilience, and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and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2, pp.8861-8880, 2015. DOI:http://dx.doi.org/10.5762/KAIS.2015.16.12.8861
- [5] Kim EJ, Gu MO. "Recognition for nursing competency importance, nursing competency level, and their influencing factors of nurses in the long-term care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3, pp.1989-2001, 2015. DOI:https://doi.org/10.5762/KAIS.2015.16.3.1989
- [6] Meretoja R, Numminen O, Isoaho H, Leino-Kilpi H. "Nurse competence between three generational nurse cohorts: a cross-sec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Vol 21, No 4, pp.350-358, 2015. DOI:https://doi.org/10.1111/ijn.12297
- [7] Park AN, Chung KH, Kim WG,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2 No 1, pp.1-10, 2016. DOI:http://dx.doi.org/10.1111/jkana.2016.22.1.1
- [8] Tan TC, Zhou H, Kelly M, "Nurse-physician communication-an integrated review",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 26 No 23-24, pp.3974-3989, 2017. DOI:https://doi.org/10.1111/jocn.13832
- [9] Chae HJ, "Relationships between nursing

- competen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and nurse role transi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9, pp.221–229, 2019. DOI:<https://doi.org/10.14400/JDC.2019.17.9.221>
- [10] Kim SS, “Effects of Simulation Learning on Nursing Competency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20, No. 1, pp. 481–488, 2022. DOI:<https://doi.org/10.14400/JDC.2022.20.1.481>
- [11] Kim YE, Kang HY, “Effects of a Nursing Simulation Learning Module on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Clinical Competence, Performance Confidence, and Anxiety in COVID-19 Patient-Car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53, No 1, pp.87–100, 2023. DOI:<https://doi.org/10.4040/jkan.22130>
- [12] Lee DS, Park JY, “A Review for Concept Clarification of Critical Thinking, Clinical Reasoning, and Clinical Judgment in Nursing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5, No 3, pp.378–387, 2019.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9.25.3.378>
- [13] Hur HK, Song HY, “Effects of simulation-based clinical reasoning education and evaluation of perceived education practices and simulation design characteristics by students nurses”,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5, No 3, pp.206–218, 2015. DOI:<https://doi.org/10.5392/JKCA.2015.15.03.206>
- [14] Wyngaarden AV, Leech R, Coetzee I. “Challenges nurse educators experience with development of student nurses’ clinical reasoning skills”,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40:102623, 2019. DOI:<https://doi.org/10.1016/j.nepr.2019.102623>
- [15] Kim JA, Ko JK, “A study on clinical reasoning ability and academic achievement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3, pp.1874–1883, 2015. DOI:<https://doi.org/10.5762/KAIS.2015.16.3.1874>
- [16] Kang MJ, Ko JH, Na MO, “Converged influencing factors on the clinical reasoning competency of senior grad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 7, pp.57–66, 2019. DOI:<https://doi.org/10.22156/CS4SMB.2019.9.7.057>
- [17] Park JA, “Level of empathy and influencing factors of empath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8, No 22, pp.781–798, 2018. DOI:<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22.781>
- [18] Kim SY,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e, Empathy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21, No 4, pp.683–691, 2020. DOI:<http://dx.doi.org/10.9728/dcs.2020.21.4.683>
- [19] Cho MK, Jeoung, H, “A convergence study of the effects of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 on clinical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11, pp.539–547, 2018. DOI:<http://dx.doi.org/10.15207/JKCS.2018.9.11.539>
- [20] Oh EJ,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Ability on Relationships among Self-awareness, Empathy,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2, pp.549–560, 2021. DOI:<https://doi.org/10.14400/JDC.2021.19.2.549>
- [21] Kim JS, Chung MS,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 according to Enneagram Personality Typ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Enneagram Spirituality*, Vol 5, pp.43–52, 2016. DOI:<https://www.earticle.net/Article/A281980>
- [22] Shin ES, Lee S, “The Emotional Intelligence, Defense Mechanism and Interpersonal Caring Behavior by Enneagram Personality Type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4, pp.514–526, 2016. DOI:<http://dx.doi.org/10.5977/jkasne.2016.22.4.514>
- [23] Won HJ, Park SH, “The Effect of Communication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by Enneagram Personality Type”, *Health & Welfare*, Vol 20, No 4, pp.159–177, 2018. DOI:<https://doi.org/10.23948/kshw.2018.12.20.4.159>
- [24] Shin ES, Lee S, “Effects of care promotion program based on nursing students self-understanding: Application of enneagram group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6, No 2, pp.132–145, 2020. DOI:<https://doi.org/10.5977/jkasne.2020.26.2.132>
- [25] F. Franz,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Vol 41, No 4, pp.1149–1160, 2009. DOI:<https://doi.org/10.3758/BRM.41.4.1149>
- [26] Yun US, “The Enieagram Personality type scale: i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5, No 3, pp.131–161, 2001.
- [27] Kim EJ, Nam KA, “Development and preliminary testing of nursing competence scale in simulation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4, pp.549–558, 2016. DOI:<https://doi.org/10.5977/jkasne.2016.22.4.549>

- [28] Joung JW, Han JW,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Korean version of nurse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scal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4, pp.304-310, 2017. DOI:<https://doi.org/10.5762/KAIS.2017.18.4.304>
- [29] Davis M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Vol 10, pp.85-103, 1980.
- [30] Kang I, Kee S, Kim SE, Jeong B, Hwang JH, Song JE, Kim JW,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version of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48, No 5, pp.352-358, 2009.
- [31] IEA-KOREA, "Exploring the Enneagram 27 Subtype", *Korea Enneagram Association Fall Conference Proceedings: 27 Subtypes(Long Type, Chest Type, Head Type)*, pp.2-5, 2016.
- [32] Han YI, Yang YO, "The Influence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Empathy Ability on Clinical Reasoning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4, No 1, pp.107-123, 2024. DOI:<https://doi.org/10.22251/jlcci.2024.24.1.107>
- [33] Kim CL, Lee WJ, Kim BR, Kim EJ, Kim JS, Kim HW, Kim HJ, Park SY,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and Confidence in Performing Core Basic Nurs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 21, No 4, pp.81-89, 2023. DOI:<https://doi.org/10.22678/JIC.2023.21.4.081>
- [34] Ahn, JH, Kim, MS, "Influence of Self-reflection and Insight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6, No 2, pp.176-184, 2020. DOI:<https://doi.org/10.14370/jewnr.2020.26.2.176>
- [35] Chang HK, Do YJ, Han SM, Kim BR, "Relationships among Person-Centered Care Competence, Empathy, Mindfulness and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9, No 2, pp.97-105, 2021. DOI:<https://doi.org/10.17547/jksr.2021.29.2.97>
- [36] Kim EJ, Nam KA, "Effects of Team-based Simulation Training on Patient Safety Confidence and Nursing Competenc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26, No 2, pp.130-138, 2020. DOI:<https://doi.org/10.14370/jewnr.2020.26.2.130>
- [37] Hahn SW, Chun Y, "Convergence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Reasoning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10, pp.181-186, 2020. DOI:<https://doi.org/10.15207/JKCS.2020.11.10.181>

※ 이 논문은 2024년 광주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